

오답노트 활용, 약점을 보완하라

수능 한달 앞으로... 책상마다 방역용 가림막 설치, 장애물 가정하고 공부해야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진행, 수능 시행일 변경, 대입전형 일정 및 전형 방법의 변화 등으로 대입과 수능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코로나19는 초유의 상황에서 수능에서도 방역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외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올해 수능과 예년 수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험실 책상마다 방역용 가림막이 설치된다는 것이다. 수험생 책상에는 전면에 반부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돼 책상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점심식사 중 감염위험을 최소화한다

수험생이 유념해야 할 것은 이 가림막이 시험지를 펼쳐 놓고 문제를 풀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평소에도 책상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하고 공부하

거나 문제를 풀이하며,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 수능에서는 시험실과 시험관리 인력도 대폭 강화된다. 수능 시험실은 일반 수험생 시험실, 시험 당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보인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 자기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 시험실 등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시험실이 준비돼 수험생들을 돕지만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거나 유증상이 발생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고위험군 시설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 위생에 신경쓰으로써 자칫 건강상의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수능일에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만큼 평소 생활이나 모의고사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의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감염 학교 내 갑작스런 확진자 발생 등의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하기 위해 수능 시행 1주 전인 28일부터 전국의 고등학교와 수능 고사장으로 제공되는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수험생은 외출 자제 등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수능을 준비할 때 지나친 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조금에 하지 말고 자신이 평소 계획한 대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망 대학을 고려한 맞춤형 공부 필요**=수능 공부의 지망 대학의 모집 단위에서 비중이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지망 대학을 몇 개 선정해 해당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중치 등을 고려해 비중이 높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위권 학생들은 변별력을 확보할 고난도 문제에 대비하고,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이 다소 아쉬운 학생들은 출제경향과 유형을 꼼꼼히 점검해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 참고**=올해 수능 시험도 EBS 수능교재 및 강의를 연계해 출제하는 데 연계비율은 문항 수 기준으로 70%수준이다. 따라서 수능 준비에서는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한 올해는 고3 수험생이나 N수생 모두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를 고려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BS 교재가 기본이 된 수능 학습이 필수다.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오답노트 활용**=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 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기해야 하는 시기다. 다만 문제 풀이도 그냥 정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교과서를 통해 기본 개념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 풀이를 통해 영역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많이 하고 수능시험에 대한 실전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정은성기자

'학생 서비스 만족도' 전북대, 2년연속 1위

지방 국립대 '2020 서비스품질지수 평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0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지방 국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하며 학생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대는 이 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표준협회가 각 대학별 1학년을 제외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일대일 개별면접과 인터넷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본원적 서비스와 예상의 부가서비스, 신뢰성, 친절성, 적극자원성, 접근용이성, 물리적 환경 7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됐다.

전북대는 이 평가에서 82점을 받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전북대는 접근용이성에서 83.5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본원적 서비스 82.8점, 물리적 환경 82.6점, 적극자원성 82.3점 등 세부 지표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0 KS-SQ 인증 수여식'을 갖고, 각 부문 수상 기관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전북대는 이날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 인증패를 받았다.

전북대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은 등록금은 매우 적은 반면 학생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교육부가 발표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국립대 법인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중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학생 1명에 평균 1,778만원을 투자했다. 국가 거점국립대 평균이 1,730만원

임을 감안하면 전북대가 여느 대학보다 학생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혁신 교육 플랫폼 구축을 기지로 내걸고 교양교육 내실화와 전공교육에 창의성을 부여하는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전북대는 우수인재 유치에서부터 잘 가르치는 혁신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이 학생의 입학부터 학부과정, 대학원 진학, 취업까지 총괄해 지원하는 HIS(Honor Stud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잠재력이 큰 동남아 대학을 중심으로 아시아 대학 교육연합체(Asian University Education Association)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교육의 자평도 세계 속으로 넓히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비롯해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모두 선정됐고, 교육부의 '실용실용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도 수행하는 등 두툼한 창업 지원금까지 확보하고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학생 스타트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동원 총장은 "우리대학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룰 혁신 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진하고 있는 학생 교육 분야의 사업들을 더욱 내실화하고 고도화해 앞으로도 학생 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주대 드론축구단 출범

27일 전국대학 축구대회 참가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승 교수)은 지난 2일 공학2관에서 드론축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LINC+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대한드론축구협회, 전주시와 공동으로 드론축구페스티벌을 개최했으며, 매년 드론축구단을 운영해 각종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에는 토목환경공학과 유대민 학생을 대표로 15명으로 구성된 드론축구단을 출범해 제1회 전국대학드론축구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드론스포츠팀을 키운다.

전주대 LINC+사업단은 2017년부터 드론스포츠 분야 인재양성과 활성화를 위해 드론융합전공을 개설하고 드론 School을 운영했으며, 지난 6월에는 전국 최초로 전국 36개 대학이 참여하는 한국대학드론스포츠협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또 오는 27일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전국대학드론축구대회를 전주대 희망홀에서 개최해 전국 19개 대학의 22개 팀이 이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주승 LINC+사업단장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LINC+사업단(단장 주승 교수)은 지난 2일 공학2관에서 드론축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북교육청, 오늘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4일 도내 고,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부서별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근무수칙과 직장 예절을 익힌 후 멘토와의 만남, 부서별 탐방 인터뷰, 1일 현장 업무 체험 등을 통해 교육행정공무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행정기관의 다양한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정은성기자

'과학 활동중심 수업모형 나눔마당' 성료

2020 과학 활동중심 수업모형 나눔마당이 3일 전주비전대 행복기숙사 2층 세미나 A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도내 중·고교 과학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UMBC 대학 개발 수업모형인 '인스파이어(INSPIRES)'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교과별 프로그램 및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스파이어'(Increasing Student Participation, Interest, and Recruitment in

Engineering and Science) 커리큘럼은 공학과 과학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UMBC(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교수진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 교육에 영감을 불어넣는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STEAM, PBL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생활과의 맥락과 설계 공학이 좀 더 강조된다.

/정은성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